

# Story of Michelle

Sunny House 201 Nishi 10 Jo Kita 5 Chome 26-82 Nayloro Hokkaido 096-0040 Japan  
Tel: 81-1654-8-7742/ Cell: 81-80-3293-6775 [michyus69@gmail.com](mailto:michyus69@gmail.com)  
August 2019

"And should not I pity Nineveh, that great city, in which there are more than 120,000 persons who do not know their right hand from their left, and also much cattle?" Jonah 4:11

The wickedness of Nineveh reached to the heaven and God sent Jonah to give them the warning message. When they heard the God's message, everyone knelt down before the Lord and repented their sins. Jonah was upset seeing the Lord forgiving Nineveh. However, God kept expressing how much he loved the people in Nineveh to Jonah. No matter how much we fall into the sin, God gives us a chance to repent because He loves us and have pity on us. When we repent our sins, He forgives our sins. It is not because we are deserved to be forgiven, but it is because of His mercy and love. It is because of God's big love toward us which we don't really understand like Jonah. Since we live by His love, we seek to be humble and live with thanksgiving. Also, we seek to remember God who always encourages and gives us the comfort when we face the troubles.

Through many prayers and by the grace of God, I finally finished all 8 cycles of chemotherapy. CT test result which was held on August showed that everything was clean. However, my blood result showed high level of tumor which means that there are great possibility of reoccurrence. There is nothing I could at this moment. I just need to take care of my physical condition well and increase the immune system of my body. If the tumor level won't go down on test on November, then I need to go through all the detailed test and check ups again. I ask you to pray continually for me that my immune system would increase so that the tumor level would drop.



My ministry in Nayloro Grace Church gets increasing little by little. I do the Sunday worship message once a month and do the children's ministry every week. July and Aug were busy with summer activities. 7/26-27 was children's camp with Nagayama Church children. Nagayama Church is our supervisor church. It rained whole two days, but we still had fun time without any accidents. Praise the Lord for His protection. There was a summer festival at Nayloro Grace church on 8/3. 15 children came and some of their parents came also. There were about 28 people including our staffs on that day. I was told that it was one of the biggest number of Grace church's outreach. We were so thankful to have so many unexpected people that God has sent. We pray that many of them would come to church more and more and eventually to Christ in the near future.

English and Korean conversation classes will start from the 1<sup>st</sup> week of September. With church member's cooperation, many flyers were sent out to our neighborhoods and many posters were posted around Nayloro city. I do not know exactly how many people would come, but I pray that everyone whom God would send would come. Through the tools of English and Korean, I pray that God's words would be delivered and that Christ would be introduced. Last 15 minutes of every class would be a chapel time including the bible talk. Please pray for me that I would share the word of God clearly and without any fear.



I would like to ask you the prayers for K who is in 7<sup>th</sup> grade right now. His parents got divorced some years ago, and he lived with his grandmother couple of months since there are many other problems in the family. However, situations got worse that he had to move out from his grandmother's house and move into the shelter. One of the reasons was that everyone in his family rejected to live with him at this moment. I can't imagine how his feeling would be. He is still young and does not know God. My heart is painful for him. I pray that his rejected heart would be filled with God's love. Please pray for his hurting heart would be healed.



Your prayers are always become my strength.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God who is gracious and merciful,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steadfast love, and relenting from disaster (Jonah 4:2) would be with you always. God bless you!  
Michelle Lee from Nayloro

# Story of Michelle

Sunny House 201 Nishi 10 Jo Kita 5 Chome 26-82 Nayloro Nokkaido 096-0040 Japan  
Tel: 81-1654-8-7742/ Cell: 81-80-3293-6775 [michyus69@gmail.com](mailto:michyus69@gmail.com)  
August 2019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 4:11

니느웨의 악행이 하늘까지 이르러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요나는 화를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니느웨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요나에게 표현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에 빠져 있는 우리 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용서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요나처럼 인간인 우리는 이해할 수 조차 없는 사랑의 용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늘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8번의 항암치료를 모두 무사히 마쳤습니다. 8월에 있었던 CT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피검사 결과의 종양의 수치가 높게 나와서 재발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치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건강관리를 하며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11월에 있을 정기검진에서도 종양의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모든 조직검사를 해야 합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고 수치가 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나요로 그레이스 교회에서의 사역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도 한 달에 한번 정도 하고 있고, 주일학교 사역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 7-8월은 특히 여름행사로 바쁘습니다. 7/26-27에는 그레이스 교회의 감사교회로 있는 나가야마교회 유년부와 함께 공동으로 여름 캠프가 있었습니다. 이를 동안 계속 비가 오는 날씨였지만, 아무 사고 없이 즐겁게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8/3에는 그레이스 교회에서 어린이 여름 패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사는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하여, 어린이만 15명이 참석하였고, 같이 오신 어머니들도 있어서 저희 스태프까지 합쳐 모두 28명이 참석한 큰 행사로 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역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사역이라 합니다. 기대하지 않은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기도하기는 행사에 참석한 이들이 교회에 더 관심을 갖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첫 주부터 저의 매인 사역인 영어회화, 한국어회화 강좌가 시작됩니다. 교인들의 협력 하에 많은 안내지가 교회 근처의 집집마다 전해 졌으며, 나요로시의 여러 곳에 포스터가 붙여졌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몇 명이 참석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려는 모든 분들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어와 한국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매시간 마지막 15분은 말씀을 간단히 전하는 채플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바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레이스 교회의 중학교 1학년인 K군을 위한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부모님이 몇 년 전 이혼을 하시고, 여러 가지 가정 형편상 할머니와 몇 달 함께 살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이 이 아이와 함께 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리고, 하나님도 모르는 K군의 마음이 어떠할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가족에게 거부당한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저에게는 늘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늘 감사 드립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요나 4:2)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를 축복합니다.

나요로에서 Michelle Lee 선교사